‘뉴파워 59인’

사람이 힘이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시대와 집단을 이끄는 건 새벽별과 같은 사람들이다.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고 낡은 가치가 새로운 질서와 갈등하는 격동의 2011년 광주·전남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영감과 노력으로 새로운 힘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중앙 정계와 관계에서, 국내외 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 땀의 그라운드와 소외된 그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있다.

광주일보는 창사 59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민에게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광주·전남 뉴파워 59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업적과 영향력을 살펴봤다.

재정통 국회의원 대활약 기대

민주당 국회의원 장병완(59) 지난해 광주시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진입.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대표적 재정통.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내년 예산 확보에 활약 기대.

민주당 차기 당·대권 주자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62) 민주당 최고위원에 두 차례 연속 진출. 민주당 남북관계발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백두산 화산 남북 공동 모니터링’ 추진으로 주목. 당권은 물론 대권 도전 가능성에 주목.

구제역 확산 저지…농수산 전문가

농림식품부 2차관 정승(53) 현 정부 내의 대표적인 농수산 전문가. 구제역 사태때 현장에 살다시피하며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했다는 평가. 개각 앞두고 유력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

납세자 권익보호 새바람

국세청 납세보호관 박훈(41) 해남출신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서 7년간 지도한 조세이론을 실무와 접목, 납세자 권익보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실질적 혜택 도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장택규(52)

목포 출신. 개별 기업당 7억원 한도이던 지역 중소기업 한은 저리자금을 14억원까지 늘리는 등 지역의 실질적 혜택을 도모했다.

한나라 불모지 호남에 교두보

국민권익위부위원장 김대식(49) 영광출신. 6·2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지사에 도전, 한나라당 후보로는 첫 두자릿수 득표율을 얻는 등 한나라 불모지 호남에 교두보를 확보한 인물.

호남 경찰 인맥 선두주자

전북경찰청장 강경량(48) 장흥 출신으로 호남 경찰 인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대 1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 강북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교과부 고위공무원단 유일 호남인맥

교과부 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49)

해남출생으로 목포고·전남대를 나온 호남 교육관료의 차세대 주자. 교과부 고위공무원단의 유일한 호남인맥으로 지방교육정책에 정통.

현대·기아 친환경차 개발 주도

현대·기아차 부회장 양웅철(57) 광주고·서울대를 나온 현대·기아차 연구개발(R&D) 수장. 현대·기아차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소통의 리더십’ 최연소 구청장

광주남구청장 최영호(46) 광주·전남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쳐 자치단체장에 오른 인물로, 각 이해집단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줌.

대불산단 규제완화 주도

전남 일자리창출 주무관 이영범(50)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업사랑 헌장’을 제정하고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주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노력.

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복지 앞장

전교조위원장 장석웅(55) 나주 남평중 다도분교 평교사로 작년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 개성·창의성을 키워주는 학교 혁신운동 주도. 의무교육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복지 실현 사업 전개.

광주테크노파크 미래 전략 지휘자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유동국(48) 강운태 광주시장 보좌관을 지낸 경영학 박사. 지역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인 광주테크노파크 지휘자로 광주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

생활속 진보 실천 젊은 구청장

광주광산구청장 민형배(50) 기자 출신으로 시민단체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청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국적 관심을 끄는 등 ‘생활속의 진보’를 실천.

차세대 성장동력 IT융합 권위자

조선대 IT융합과 교수 김윤태(52) 교육과학기술부의 ‘순환계 급성장애 예방을 위한 생체 위험 감지기술’ 사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인 IT-BT 및 IT-ET 신기술을 연구중인 IT융합기술의 권위자.

해외 사례 도입 공교육 기반 강화

전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김승호(56)

해외 공교육 사례를 현장에 접목해 지역 공교육 기반을 강화했다. 전남에 학력진단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 도서벽지학교 학력신장에 주력.

지역 동반성장 사회적 모델기업 구현

광주 신세계 대표 조창현(48) 지역 유일의 현지법인 유통대기업으로서 지역과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모델기업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CEO. 여성친화적·소비자 중심 유통문화를 추구.

‘전기자동차 메카 영광’ 견인

영광군수 정기호(56) 전국 최초로 저속 전기자동차 도로를 지정하는가 하면, 영광군 대마면 일대를 ‘전기자동차’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주력. 산업불모지 영광군을 전기자동차 메카로 견인.

소아암 국내외 폭넓은 연구활동

화순전남대병원장 국훈(51) 미국 골수 및 조혈모세포 이식학회·대한 소아 혈액 종양학회·대한소아과학회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연구활동. 재생불량성 빈혈·소아 백혈병·소아암의 권위자.

광산업 기획·R&D 특구 현실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 이병택(55)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지방 유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산업·광주전남테크노파크·R&D특구를 기획.

광주 최초 전기차 아이플러그 생산

지앤디윈텍 대표 김정수(43) 지난해 광주지역 전기자동차 개발업체 탑알앤디와 합병해 본사를 충남 아산에서 광주로 이전. 광주 최초 전기자동차인 ‘iPlug(아이플러그)’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지역 첫 민노당 출신 여성 시의원

민노당 광주시의원 강은미(41) 광주·전남 첫 민노당 출신 지역구 여성 광역의원.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광주시의회에 입성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방사선 의학 인증 실력가

아산병원 영상의학교수 서준범(41) 여수 출신의 국내 영상의학계 최고 권위자. 신영상기법 연구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유럽·북미 방사선의학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광주 터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앞장

솔렌시스 대표이사 우관제(42) 터치센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터치패드를 생산하는 솔렌시스(주)를 광주에 설립. 광주 터치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

지역 정관계·금융계 대표 마당발

광주은행 부행장 조억헌(52) 지역 정관계와 금융계 등에 두루 인맥을 갖춘 금융계 대표 마당발. 광주은행 영업력 향상은 물론 지난해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에 기여했다.

광주·전남 정권 소통 창구 역할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박재영(57) 함평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역임. 광주·전남 출신의 유일한 청와대 비서관으로 지역 민심과의 소통 창구로 활약.

가상현실 문화 콘텐츠 응용 두각

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영기(50) 호남대 가상현실응용 지역혁신센터 소장. 문광부 공모사업인 ‘아시아 지역 암각화 콘텐츠 자원화 사업’ 연구에 참여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전 금형 개발 주도…기술상 수상

삼성 정밀금형센터 상무 이상훈(52)

보성 출신. 삼성 가전 등 중대형 금형 개발 주도. 2008년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기술상. 광주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의 책임자.

펨토초 레이저 실용화 연구 주도

고등광기술연구소 레이저연구실장 정태문(41)

과기원 박사 출신으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해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딱! 먹을만큼만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로 환경이 살아납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만큼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 가정에서는 식단계획 후 알맞게 장만합니다.
-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은 포장해 줍니다.
- 큰뼈, 복숭아씨, 조개껍데기,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등)은 쓰레기봉투에 분리배출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은음식 Zero 운동본부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서구지부